

산자부, 유유에 15억-25억원 지원

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지정 ... 치매 · 대사증후군 · 비만 치료제 개발

유유는 천연물 신약 개발력을 인정받아 산업자원부로부터 2005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(ATC)로 선정됐다고 5월24일 발표했다.

산자부가 선정한 ATC에는 매년 연구개발 지원금 3억-5억원이 5년간 제공된다.

산자부는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연구소 가운데 3년 이내에 세계 10위 이내의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,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(R&D) 투자실적이 3-9% 이상인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ATC를 선정한다.

2005년 ATC 기업으로 선정된 유유는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 천연물을 이용해 치매 치료제, 대사증후군 치료제, 비만 치료제 등 3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된다.

유유 관계자는 “산자부로부터 인증받은 신약개발 기술력으로 상품개발에 성공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 경쟁력을 가진 약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세계 일류화상품 개발에 투자할 총 개발비는 5년간 35억원 수준으로 이번 정부 보조금과 자체 투자로 충당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5/25>